

‘포용+혁신’ 투트랙... 시로 금융 패러다임 새로 쓴다

금융의 미래 * KB 금융그룹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KB금융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겠다”고 강조한다.

양회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금융은 단순한 자금 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선 포용으로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우리 경제에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 포용 프로젝트... ‘지속가능 금융을 담다’

7일 KB금융에 따르면 금융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 대상 금리 우대 프로그램이 8조원 규모로 커졌다. 영업점 전결 금리우대 프로그램은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국가 주력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 ‘한시 특별 금리우대’는 3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230억원을 특별출연해 84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공급함으로써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은 3년간 보증비율 100% 우대 협약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최대 1.5%포인트(p)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동반성장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최대계열사인 KB국민은행에서 지난 6월 말까지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5608명, 지원금액은 총 121억9000만원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워크숍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KB여의도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건네고 함께 포즈를 취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보증·대출·금리우대 금융지원
출산·육아·착한가게 사회공헌

그룹 공동 AI 플랫폼 ‘젠AI’ 구축
상담·자산관리 AI 에이전트 개발
초개인화 서비스로 미래 금융 추진

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상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약 135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477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KB마음가게’도 운영하고 있다.

◆ KB금융, AI를 채용하다

KB금융은 그룹내 전자플랫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KB AI 전략’과 ‘KBAI 에이전트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룹 주요 업무영역 약 39개 내 250여 개의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양 회장은 올해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인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양 회장은 최근 AI 기술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내부 부서장 회의에서 “AI를 외부에서 구입해(buy) 쓰려 하지 말고, 일하는 실재 인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하라(employ)”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AI기술을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최초의 에이전트 AI 기반의 AI 활용 환경인 ‘KB 젠(Gen)AI 포털(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KB금융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 임직원들의 업무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영업 현장과 고객 수요를 고려해 선정한 금융상담·PB 에이전트(KB국민은행), 자산관리·상담지원 에이전트(KB증권, 보험상담 에이전트(KB손해보험), 카드상담 에이전트(KB국민카드), 보험 에이전트(KB라이프생명) 등을 우선 개발 중이다.

◆ 혁신금융 지정... ‘초개인화 서비스’

KB국민은행과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 KB

금융의 8개 계열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생성형 AI’ 관련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금융그룹 가운데 가장 많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주요 서비스는 ▲금융상담 에이전트(은행)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증권) ▲모두의 카드 생활 메이트(카드) 등이다. 계열사들은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KB금융 계열사들은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생성형 AI 활용 환경인 ‘KB 젠 AI 포털’을 통해 상용 LLM(거대언어 모델)을 각 계열사별 서비스 환경에 맞게 적용·활용할 수 있다.

KB금융은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AI 에이전트 구현과 더불어 IT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를 연계한 생성형 AI 생태계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의 금융 접점마다 AI 에이전트를 탑재하여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향후 펼쳐질 AI 중심의 금융혁신 경쟁에서 KB가 그룹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계열사별 업무 생산성 증대 및 고객 서비스 편의성 제고 등 그룹 내 AI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전략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창권 KB금융지주 디지털·IT부문장(두번째줄 왼쪽 일곱번째)이 ‘KB스타트업 웰컴데이’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